





## 서가풍경

# '풀씨' 들이 모여 꾸미는 녹색의 공간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정상명 대표의 서가

정상명씨(51)를 '출판사 대표'라 칭하는 것이 그른 표현은 아니다.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이 출판사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정씨의 대외적 직함은 환경·시민단체 대표이나 본업은 화가다.

녹색갤러리 2층에 자리잡은 '풀꽃세상' 사무실의 서가는 정상명씨가 요즘 몰두하고 있는 일의 '정체'를 한눈에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환경운동가의 책꽂이였다.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을 제외하곤 화가의 손길이 미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출판사 서가 보다 더 실용적인 진용을 짜고 있는데, 책들이 주인의 부름에 언제나 뛰쳐나올 태세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나무의 신화》《생태학》《지구환경 보고서》《공생의 사회》 등이 그런 책들이다. 서가 한편에는 《녹색평론》이 빼곡히 꽂혀 있다.

“어수선하죠. 우리가 편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재·사무실·손님방·일터를 겸한 다용도 공간입니다. '풀씨'(모임 회원을 이렇게 부른다)들이 와서 부담 없이 차 한 잔 마시고 놀다 가기에 편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갤러리 4층에는 정씨의 아틀리에가 있다. 그림 그릴 때는 주변을 정돈한 다음 붓을 든다는 습성대로 화실은 단아했다. 나지막한 책꽂이에는 미술잡지 등속이 정렬해 있다. 정상명씨 이름이 들어간 책 두권도 서가에 숨어 있다. 《꽃잎 뒤에 숨은 사람》(산책, 1993)은 그의 산문집이고, 최근 출간된 이해인 수녀의 시집 《고운 새는 어디에 숨었을까》(샘터)에는 그의 그림이 지면을 빛내고 있다. - 최성일 기자

